

글로벌 감염병 시대에서 내과역사의 역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 우 주

감염병은 역사적으로 전쟁, 기아 등과 함께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으며, 감염병의 대유행은 역사의 흐름을 크게 바꿀 정도로 영향을 끼쳐왔다. 일례로 14세기 유럽의 페스트 대유행은 인구의 1/3이 사망을 초래하였으며, 16세기 유럽인의 아메리카 신대륙 정복도 천연두, 홍역 등 구대륙 감염병의 유입 확산이 큰 역할을 했다. 인류는 불과 한세기전만해도 각종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현재와 같은 건강한 삶과 장수를 누리기가 어려웠다. 18세기말 제너에 의한 우두백신 도입, 19세기 손씻기 및 위생의 중요성 입증, 그리고 20세기에 들어 플레밍에 의한 항생제의 발견 등으로 감염병은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1960년 경에는 장차 감염병으로부터 인류가 해방될 수 있으리라는 선부른 전망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신종감염병들이 연이어 출현하면서 미생물의 인류에 대한 반격이 거세어 졌다. 1976년 에볼라바이러스, 1982년 장출혈성 대장균 O157:H7, 1983년 인면역결핍바이러스(HIV), 1987년 반코마이신내성 장구균(VRE) 등 거의 해마다 한 가지씩의 신종감염병 병원체가 출현하였다. 최근에는 1997년 H5N1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코로나바이러스, 2009년 H1N1 돼지인플루엔자바이러스, 2012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코로나바이러스 등이 새로이 인체감염 유행을 초래하여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위협이 되고 있다. 신종감염병과 더불어 한때 감소했다가 증가되는 재출현감염병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말라리아, 약제내성 결핵, Dengue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병원에서는 항생제 내성 세균에 의한 의료관련감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가용한 치료 항생제가 고갈되고 있다.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의 출현 및 확산의 이유로는 인구 증가, 노

령자 및 면역저하자 증가, 국제간 교역 및 여행 증가, 토지 및 밀렵 개발, 기후 및 환경 변화, 지역 분쟁 및 인구 이동, 공중보건체계의 와해 등이 있다. 즉 과거와 달리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밀렵에서 신종병원체가 인체 감염을 일으키고 국제적인 항공 및 물물교역으로 빠르게 세계적으로 확산이 쉬운 여건이 되고 있다. 또한 노령 및 면역저하 인구의 증가는 신종병원체의 숙주가 되기 쉬우며, 의료기관의 대형화와 취약한 감염관리실태는 신종병원체의 유행에 취약한 환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번 신종감염병이 유행하게 되면 대규모로 발생하고 단기간에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되고 있다. 신종감염병의 유행은 단순히 보건의료문제로 입원 및 사망환자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공포를 조장하며,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끼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신종감염병은 향후 예상하지 못했던 감염력과 병독성을 가지고 더욱 빈번하게 출현하여 인류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이다. 신종감염병에 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발견 그리고 조기 통제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감염병 감시 및 관리 통제 조직, 전문성과 위기관리능력을 갖춘 감염병 전문가,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비대응 매뉴얼 준비 및 상시 교육훈련, 신종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법 확보, 치료제 및 백신 연구개발 등이 필요하다. 특히 내과역사들은 개원의 또는 봉직의로서 신종감염병 환자를 최초로 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신종감염병의 임상적 진단 능력 그리고 신종감염병 환자의 감염관리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숙지가 매우 필요하다.